

# 매체교육과 언어인식

김동환 한성대학교 교수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I. 문제제기
- II. 교육과정상의 매체교육의 양상
  - 1.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매체의 유형
  - 2. 매체의 교육적 대상화의 양상
- III. 매체교육에서의 언어인식에 대한 비판적 접근
  - 1. 수용과 생산 언어의 충돌
  - 2. 자아와 언중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
  - 3. 관습과 당위적 태도 사이의 간극
- IV. 맺음말

## I. 문제제기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매체교육의 방향의 모색이나 방법론의 구안이 아닌 매체교육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언어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그리고 그 언어인식의 범주를 모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어 교육으로, 학교 교육을 넘어 사회 교육으로까지 확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매체교육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에 본격화되어 많은 논의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 논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들을 참조하되 발표 주제를 고려하여 매체교육에서 어떤 언어인식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sup>1</sup>

---

1 이 주제 발표의 준비과정에서 주로 참조한 주요 연구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김대행(1998), 「매체언어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김대행(2007), 「매체 환경의 변화와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28호, 국어교육학회.

김슬옹(2010), 『매체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출판부.

박인기 외(2000),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서유경(2002), 『인터넷 매체와 국어교육』, 역락.

논의의 필요상 필자는 매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 규정을 본 논의에 가장 유용한 것으로 수용하고 전제로 삼게 됨을 밟혀 둔다.<sup>2</sup>

- 표출(presentation) 매체 - 면대면(面對面)의 방식으로 소통되며 장시간 저장  
이 불가능함 : 말
- 재현(representation) 매체 - 표상적인 기호로 소통되며, 먼 거리에도 도달이 가능하고, 저장이 가능함 : 전보, 신문, 잡지, 만화 등
- 기계/전자(mechanic/electronic) 매체 - 표상적 또는 기술적 요소가 필요하고, 장치의 조작능력이 필요함 :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

## II. 교육과정상의 매체교육의 양상

우선 그동안 10여 차례에 거쳐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교육이 어떤 양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기별, 학교급별로 나누어, 해당 교육과정에서 처음 제시된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

윤여탁(2008),『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출판부.

일레인 볼드윈 외, 조애리 외 역(2008),『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전국국어교사모임(2006),『매체교육의 길찾기』, 나라말.

정재찬(2009),「미디어 시대의 문학교육」,『문학교육학』28호.

정현선(2004),『다매체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최인자(2002),『다중문식성과 언어문화교육』,『국어교육』109호.

2 Hart, Andrew(1991), *Understanding the Media*, Routledge.

매체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규정들 중에서 위 규정을 선택한 것은 다른 규정에 비해 교육과정상의 매체의 취급 양상을 설명하기에 유용했기 때문이다. 즉 논의에 앞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논의의 과정에서 편의상 선택한 것이다.

교육 과정기	학교급별 / 학년별	영역	관련 내용
1차 (1955)	초등 - 1년	듣기	6. 라디오를 조용히 들을 수 있게 한다.
	2년	말하기	7. 간단한 연극을 할 수 있게 한다,
	3년	말하기	9. 그림 연극을 할 수 있게 한다.
	4년	말하기	4. 전화를 걸 줄 알게 한다.
	4년	읽기	6. 어린이를 위한 신문과 잡지를 즐겨 읽고 학습 문고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4년	쓰기	6. 간단한 문집과 학급 신문을 편집하는 흥미를 갖게 한다. 7. 글자의 크기, 모양, 배열에 유의하여 쓸 수 있게 한다.
	6년	말하기	6. 발성에 유의하여 전화, 희생기, 녹음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6년	쓰기	1. 영화, 연극, 방송에 대하여 감상과 의견을 쓸 수 있다. 2. 간단한 연극과 방송의 원고를 쓸 수 있게 한다.
	중등-1년	듣기	(10) 보도 방송을 바르게 들을 수 있다. (11) 뉴스 영화, 문화 영화 등을 보고 여가를 즐긴다.
	2년	듣기	(11) 라디오를 계획적으로 듣는다. (12) 극이나 영화를 바르게 볼 수 있다.
	3년	듣기	11) 방송 프로그램의 선택 편성에 대하여 생각한다. (12) 영화나 극히 좋고 나쁨에 대하여 의견을 기질 수 있다.
	3년	쓰기	(10) 신문 잡지 등의 편집에 대하여, 일반적이나 이해를 가지게 한다. (11) 학교 신문을 편집한다.
	고등	목적	5. 방송, 영화, 연극, 소설 등을 바르게 평가하고, 그릇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식견(識見)을 가지게 한다
		언어 생활	c. 마이크나 메가폰을 사용하여 이야기 할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말하기	10. 방송(放送)을 한다. 11. 연극을 한다.
		- 듣기	4. 라디오를 듣는다. 5. 전화(電話)로 이야기를 한다.
		듣기	5.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을 할 줄 알고 영화나 극을 비평할 수 있도록 한다
2차 (1963)	중등-3년	목적	5. 방송, 영화, 연극, 소설 등을 바르게 평가하고, 그릇된 것을 알아 낼 수 있는 식견(識見)을 가지게 한다.
	고등 (1963)	목표- 말하기	(9) 마이크나 전화를 사용하여 요령 있게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10) 극의 대사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듣기	(8) 알맞는 음성과 울동적인 언어 등을 맛볼 수 있도록 한다.

2차 (1971)	고등	쓰기	다음 사항을 지도 - ④ 신문 잡지 등을 편집하기
3차 (1976)	중등	말듣 쓰읽	(12) 극(라디오 방송극, 텔레비전 방송극), 영화, 연극 등
	고등	지도상 유의점	(자) 극의 체험은 편의상 읽기 영역에 포함시켰으나 독립된 창조 활동에 하나이므로 교육적인 계획 아래 극의 체험을 가지도록 하되, 다른 학습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차 (1981)	고등 국어1	문학	마) 공연 예술의 대본으로서의 회곡과, 영상 예술의 대본으로서의 시나리오가 아닌 차이를 인다.
	국어2	목표	4) 언어 현상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5차 (1987)	초등-3년	듣기	마) 일기 예보, 광고 등을 듣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5년	쓰기	다) 이어진 그림이나 만화를 보고, 각 장면의 내용을 몇 문장으로 표현한 뒤, 이들을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든다
	6년	말하기	사) 상품이나 매체에 따른 광고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고, 하나의 대상을 선정하여 광고하는 말을 한다.
	6년	읽기	나) 어린이 신문 기사, 참고 서적, 광고문 등 여러 가지 자료의 특성을 알고, 읽는 방법과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6차 (1992)	고등 (원리와 실제)	말하기	(10) 내용 전달의 효과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쓰기	(9) 그림이나 도표 등 적절한 자료를 사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 사회과	문화 생활	(라) 현대 사회의 문화 - 현대 사회의 문화 변동, 대중 매체와 대중 문화, 청소년 문화, 지역 문화
7차 (1997)	초등 - 3년	말하기	텔레비전에서 본 것이나 라디오에서 들은 것 중에서 화제에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4년	말하기	연극이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배우들이 상황에 따라 말, 표정, 몸짓, 어조를 어떻게 달리 사용하는지 안다.
		쓰기 쓰기	만화 영화의 내용을 사건이나 행동의 변화가 드러나게 글로 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족 신문에 실을 만한 내용을 글로 쓴다.
	5년	듣기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등장 인물의 어휘 사용이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를 찾고 적절한 어휘로 바꾼다
		쓰기	그림이나 사진, 표 등을 넣어 자신이 쓴 안내장이나 신문기사를 보기 좋게 편집한다
	6년	듣기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강연회 등에서 관심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듣는다
	7년	말하기 (쓰기)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말한다(쓴다). •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종류와 활용법 등을 안다.

7차 (1997)	8년	쓰기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전달 효과에 대해 토의한다
	9년	읽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의 이해도를 높인다. • 영상 매체나 청각 매체 등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토의한다.
	10년	쓰기	신문이나 잡지에서 논쟁이 이어진 예를 찾아보고, 쓰기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토의한다.
	국어생활	매체 환경	① 현대인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매체의 작용을 이해한다. ② 지식 정보 사회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의사 소통의 특성을 이해한다. ③ 여러 가지 매체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④ 대중 매체로 표현된 국어 사용 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⑤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한다.
	국어 5년	듣기	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친구들 간의 온라인 대화
2007 개정	7년	듣기	대중에 대한 호소력이 높은 광고(설득전략)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토론
	8년	듣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평가한다. - 다른 매체 프로그램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과 비교하기
		읽기	다양한 풍자물의 매체 특성과 그 효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쓰기	목적, 독자, 매체가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9년	읽기	만화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함축된 의미를 해석한다.
	10년	말하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매체언어	비판적 수용과 심미적 향유	① 매체 자료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②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③ 매체 자료의 창의적인 표현 방식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창의적 변용과 생산	① 기존 매체 자료를 창의적으로 변용하여 생산한다. ② 매체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 내용을 다른 매체로 표현한다. ③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2009 개정 (2011)	고등 국어 I	작문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고등 국어 II	화법	-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주장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면 비판적 듣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 매체 자료의 유형과 기능을 이해하고,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독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다.
		작문	글의 전달과 사회적 파급력과 연관된 매체의 효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책임감 있게 인터넷상의 글쓰기를 한다.

위 내용들은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서 매체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을 적출한 것이다.<sup>3</sup> 유사한 속성의 요소들은 맨 먼저 제시된 교육과정에서 찾아내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교육과정들에서 나타나는 매체교육에 대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을 정리해 낼 수 있었다.

### 1.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매체의 유형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유형들을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디오 - 연극 - 전화 - 신문과 잡지 - 확성기, 녹음기 - 영화, 방송 - 텔레비전 - 일기 예보, 광고 - 그림, 만화 - 매체[5차] - 만화 영화 - 컴퓨터 - 인터넷, 컴퓨터 통신[7차] - 멀티미디어

이들 유형들을 다시 표출, 재현매체와 기계/전자 매체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표출 매체 : 연극 - 확성기 - 광고(음성)

재현매체 : 신문과 잡지 - 그림과 만화 - 광고(지면) - 영화 - 만화 영화

기계/전자 매체 : 라디오 - 전화 - 방송 - 텔레비전 -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 통신 - 멀티미디어

이들 유형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상에 반영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대체로 기계/전자 매체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유형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목되는 부분은 7차 교육과정기부터 매체 관련 교육 내용이

---

3 참고로 국어과가 아닌 타 교과에서 매체가 등장하는 것은 6차 교육과정기부터이다. 이는 매체가 국어과 교육에서 다루기에 적합한 대상이라는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개인적인 기계/전자 매체를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이 주요 매체로 등장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매체가 집단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맥락과 연결되는데, 매체의 개인화는 국어교육이 개인적 언어 능력의 향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 2. 매체의 교육적 대상화의 양상

다양한 매체를 국어교육에서 하나의 교육적 대상(현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맥락은 ‘수용’ - ‘활용’ - ‘작용’으로 압축된다.<sup>4</sup>

먼저 ‘수용’의 측면은 매체 및 매체를 통해 생산되거나 전달되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자기화하는 활동 양상을 의미한다. 매체 관련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 중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양상으로 판단했는데, 해석적 수용과 비판적 수용으로 대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sup>5</sup> 해석적 수용은 매체의 기능(원리) 또는 매체 텍스트의 메시지를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비판적 수용은 주로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과정을 거쳐 수용하는 일을 말한다.

‘활용’은 학습자의 표현 활동에서 매체의 기능이나 원리를 익혀 방법적으로

- 
- 4 수용 - 활용은 활동과 관련되며 작용은 활동과정에서의 매체의 존재방식과 관련된다. 따라서 세 맥락은 별별적인 것이 아니며 충위가 다르다. 이러한 설정 역시 앞서의 매체의 개념 규정과 같이 언어 인식에 대한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귀납적인 접근 결과에 의해 도출한 설정이다.
  - 5 ‘비판적 수용’은 그동안 국어교육에서 경험적·역사적으로 사용한 의미 범주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해석적 수용’은 하버마스가 『인식과 관심』에서 제시한 용어 중의 하나인 ‘해석적 이해’를 원용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체험은 공적으로 확립된 상징적 구조인 언어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체험들이 담긴 상징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해석적 이해는 언어적 의사소통 공동체의 상호주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맥락에서 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로 이용하는 일을 말하며 교육과정의 초기에는 전화 등의 기계적 매체를 직접 사용하여 소통을 하는 양상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의사소통을 보완하고 노력하는 도구적인 사용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작용’은 교육과정상의 내용 요소로서의 수용과 활용에서 지배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필자가 추출해 본 용어이다. 수용과 활용 과정에서 매체 또는 매체 텍스트가 어떤 ‘효과’를 주는 장치로 작용하는지, 언어생활과 인식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 작용은 개인적인 범주와 집단적(공동체적) 범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자에 무게가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III. 매체교육에서의 언어인식에 대한 비판적 접근

매체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드러나는 언어인식은 언어를 매체로서의 언어, 매체 텍스트의 질료로서의 언어로 보는 관점에 국한되어 있으며, 매체나 매체 텍스트에 작용하는 언어의 본질적 속성이나 존재론적 양상에 대한 시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매체 언어에 대한 인식은 매체와 매체 텍스트의 메시지 형성과 그 전달 과정 및 전략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상적인 맥락에 국한되어 있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교육적 대상인 매체와 매체 텍스트의 언어가 어떤 속성에 기대어 작용태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인식적 판단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다만 추론을 통해 그 맥락을 간접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따름이다.

필자가 추론하게 되는 매체교육에서의 언어 인식의 양상은 ‘매체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매체 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이라는 용어

는 ‘비평과 판단’을 함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평’이 균형감각을 갖춘 평가라는 의미보다는 문제적인 요소를 내포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적인 인식은 교육과정상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번 기획주제의 의도를 이러한 인식에 대한 비판적 접근의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그러한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 1. 수용과 생산 언어의 충돌

앞에서 살펴 본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들을 점검하면서 매체의 교육적 대상화의 양상에서 수용과 활용의 측면에 주목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수용 중의 한 범주인 비판적 수용과 활용의 학습 요소들은 학습자들에게 이분법적이며 대립적인 언어를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비판적 수용의 경우 1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목적 중의 하나인 ‘방송, 영화, 연극, 소설 등을 바르게 평가하고, 그릇된 것을 알아 낼 수 있는 식견(識見)을 가지게 한다’로부터 시작해서 7차 국어생활을 거쳐 2007 개정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되는데, 여기서 그 문제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교육과정 내용에 따르면 비판적 수용을 하는 한편 창의적 생산으로 나아가도록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외견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를 언어인식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일종의 충돌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매체 자료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과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일에 작용하는 언어는 분명 다른 속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해당 매체 자료의 언어가 전달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정작 자신이 생산자가 되어 문제가 없는 의미로 구성된 텍스트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에 대한 두 가지 인

식을 동시에 아우르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를 ‘권력언어’<sup>6</sup>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면 보다 확연해질 것이다. 수용의 측면에서는 생산자가 일종의 권력을 얻기 위해 부당한 맥락에서도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라는 것이고 생산의 측면에서는 부당하지 않은 맥락에서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용의 언어와 생산의 언어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서게 될 때 갈등을 겪어야 할 문제가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10학년의 성취기준 중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기를 소개한다.’는 성취기준을 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자료(이미지, 문자 등의 텍스트를 내세우기도 함)를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활동을 구안하고 있다. 그런데 전후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런 자료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예가 그 대표적이다.

#### 〈학습활동〉

〈가〉 블로그에 자기를 소개하기 위한 글과 자료를 올려 보자.

- 애들아 나는~

〈나〉 다른 친구들의 블로그를 방문해 친구들의 소개의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아 보자.

재간동이 : 너도 영화를 보는 거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하는데. 이번 주

6 권력언어란 언어활동이 궁극적으로는 발신자의 특정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기여한다는 관점에 서서 정립해 본 말이다. ‘Language based on the power’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특정한 목적이나 이익의 성공적 달성이 결국은 발신자에게 다양한 양상의 힘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필자가 고안해 본 개념이다. 용어를 고안했을 뿐 언어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속성을 지닌다는 인식은 기존의 언어학적 시각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두 책은 이 발상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노먼 페어클럽(김지홍 역), 언어와 권력, 경진, 2010.  
크리스틴 케닐리(전소영 역), 언어의 진화, 알마, 2009.

말에 영화 보러 갈까?

엥스 : 사진 진짜 잘 나왔네. 누가 찍어 준 거야?

위 두 활동 <가>와 <나>는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에서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활동 즉 생산 활동을 주문하고 있고, <나>는 수용 활동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매체 언어를 접할 때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자기소개’라는 양식이며 학습자 자신과 친구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비판적 분석이나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조금만 확장해서 본다면 당연히 비판과 분석의 대상이 된다. ‘자기소개’라는 내용적 특성을 제쳐둔다면 다른 매체 자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런 학습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능력은 일반적인 매체 자료에 대한 비판과 분석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라는 매체 텍스트는 일종의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자기소개’에 머물지 않고 학습한 결과를 확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소개’라는 대상을 일반적인 범주로 확장해서 볼 경우 학습자들이 인터넷에서 다양한 형태로 만나게 되는 정보 제공 텍스트와 맞물리게 된다. 즉, 생산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와 같게 된다는 의미이다. 자기소개가 철저히 사실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신자가 누구이며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선택적 강조도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의 재해석이나 의미부여도 이루어진다. 나아가서는 다소의 과장이나 은폐, 과도한 미화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는 그 정보에 대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대하게 된다.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학습자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의 언어 운용과 다른 사람의 소개 내용을 대할 때의 언어 운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이미 일상생활에

서 그러한 언어 운용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한 교사의 말을 빌리면 학생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열려 있는 블로그에 자기 신상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자신의 취미나 여가 생활을 ‘고상하게 보이려는 태도’가 대체적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글을 보는 학생들도 ‘고상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쓴 것’이라든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이런 양상은 생산 과정과 수용 과정에서의 언어에 대한 태도가 모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따라서 이 두 언어 운용 양상 간의 거리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로서의 태도를 충분히 고려한 생산활동이 필요함을 두 활동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즉, 자신이 생산하는 텍스트는 다른 수용자들에게 비판적인 접근의 대상이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생산 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언어인식의 측면에서 충돌하는 양상이 된다. 매체 텍스트에 작용하는 언어가 한편으로는 권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부당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긍정적 권력을 얻기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분열적 언어인식을 가져야 함을 말해 준다.

이런 점에서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과정에서 운용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두 과정과 연관된 활동을 동일한 맥락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성취기준이나 학습활동 제시는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하리라 본다. 학습자가 두 과정을 서로 분리된 맥락에서 경험함으로써 각 과정이 필요로 하는 언어에 대해 명징하게 학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용할 때의 언어와 생산할 때의 언어는 그 운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학습하게 될 때 매체 텍스트와 문화를 주체적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될 것이다. 형성기에 있는 학습자가 언어적 충돌 양상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주체적인 능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수용자의 사고과정 속에 자리 잡게 될 분열

적 언어인식은 교육적 배려와 방법을 통해 치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 2. 자아와 언중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

앞의 항목에서 지적한 문제가 학습자라는 주체의 내적 범주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 문제는 수용자로서의 학습자와 또 다른 주체인 생산자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외적 범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어생활에서 한 주체는 개별적인 언어주체로서와 집단적인 주체로서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매체 또는 매체 텍스트를 대하는 학습자 역시 이러한 양면성이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중요한 단계에서 매체교육을 받게 된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운용자나 매체 텍스트의 생산자로서의 언어주체를 상정해야 한다. 여기서 운용자와 생산자는 매체의 유형에 따라 개인이거나 집단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성격화된다. 그런데 개인으로 성격화되는 생산자는 우리 사회에서는 전문가로 규정된다. 위에서 살핀 비판적 수용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텍스트들의 생산자는 전문적인 언어사용자로서 그들의 언어는 언어적 능력의 형성기에 있는 학습자의 언어에 비해 우월하다. 이 우월한 언어를 학습자는 때로는 지향적인 언어로, 때로는 향유적인 언어로 받아들이게 된다.

전자는 자아실현의 언어이기도 하는데 학습자들이 장차 매체의 운용자나 매체 텍스트의 생산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을 때 그 성격이

---

7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이러한 분열적 언어인식의 양상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수용자의 입장에서만 매체 텍스트의 언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매체 환경에서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넘나듦 현상이 보다 빈번하거나 심화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논의들이 필요하다.

분명하게 드러난다.<sup>8</sup> 후자의 경우는 학습자가 언중으로 해당 매체나 매체 텍스트를 일상적으로 향유하게 될 때 그 성격이 드러난다. 이중 어떤 성격을 취하느냐에 따라 언어인식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텍스트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향유 활동을 하게 될 때 학습자의 언어는 생산자의 언어와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기에 적극적인 반응이 어렵게 된다. 즉, 생산자가 고도의 전략에 따라 언어를 운용하면서 생산한 텍스트에 대해 학습자는 낮은 차원의 언어 수준에서 수용하게 됨으로써 비판적인 수용이 사실상 무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학생들이 즐겨 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적이 있는 ‘마술쇼’가 그 대상이다.<sup>9</sup>

이 텍스트는 ‘마술’이라는 대중문화를 이야기라는 언어 양식과 결합시킨 경우이다. 통상적으로는 3~4개의 단위 마술로 보여 주게 되는 ‘마술사의 감금과 탈출’이라는 소재를 잘 알려진 모티프와 결합시켜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요약된다. 한 마술사가 뱀파이어에게 끌려간 연인을 구하기 위해 대결하지만 역부족으로 붙잡혀 감금되게 되는데 쇠사슬을 끊고 무사히 탈출해 연인을 구한다. 여기에서 마술사가 탈출을 하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마술의 한 유형으로 관객들로서는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력이 있는 관객

8 대중 매체 텍스트의 수용자가 점차적으로 잠재적인 생산자로서의 위상도 지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다음 논저를 참조한 발상임.

데니스 맥컬, 박창의 역,『수용자 분석』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9 SBS, <스타킹>, 2010. 11. 15 방영분 중 ‘이은결 이성민 마술쇼’.

이 사례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매체 텍스트가 문자 언어로 된 텍스트에 초점이 놓여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인 매체 텍스트에 대한 향유능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는 예능프로그램들도 비판적 수용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매체 언어가 구조적으로 발현(스토리텔링)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들에게는 마술로서 보기에도 썩 매력적이지 않은 유형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이야기가 입혀지고 마술이 이야기의 한 요소로 편입되면서 사정은 달라진다. 관객들은 이야기의 흐름과 음악적 요소에 몰입되어 해당 마술이 지니는 진부함이나 마술로서의 미달 요소들은 관심 밖에 두게 된다. 이러한 변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텍스트에서 주목할 바는 이야기라는 언어 양식의 기능이다. TV라는 매체 속에 등장하는 마술은 단순한 즐길 거리로 볼 수도 있지만 오락 프로그램 일반에서 자주 노출되는 무의식적 폭력성과 비현실적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인식적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는 은유와 환유로 볼 수 있다.<sup>10</sup> 따라서 비판적 수용의 한 대상이 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수용활동을 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마술이라는 현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려니와 이야기라는 양식을 빌려온 텍스트의 특성 때문에 더더욱 접근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야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마술이라는 요소가 지니는 비현실적 사고의 문제, 속임수 같은 요소, 폭력의 정당화 등의 문제는 인지할 겨를이 없이 수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적 요소들은 고도의 전략적 기제로서 이야기 양식을 도입하는 생산자의 언어적 운용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한 전문가로서의 생산자는 수용자보다 우위에 서서 언어를 운용하는데, 문제적 요소들의 은폐와 마술사에게 치명적인 실수의 가능성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로서 언어 양식을 활용하는 데 그 요체가 있다. 수용자로서는 쉽게 포착해 낼 수 없는 고도의 언어적 전략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변용 오락 텍스트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sup>11</sup> 이러한 언어적 전략에 대한 학습은 매체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 판단된다.

---

10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는 다음 참조.

아더 아사버거, 한국사회언론연구회 매체비평분과 역, 『대중매체비평의 기초』, 이론과실천, 1990, pp. 33~35.

11 니클라스 루만, 김성재 역, 『대중매체의 현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pp. 85~89.

이처럼 전문가로서의 생산자가 운용하는 언어적 장치의 활용 양상은 중고등학교 학습자 수준의 수용자의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자 습득하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체 언어적 능력이라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그래서 이러한 매체 언어를 접하는 수용자는 언어 주체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수용자로서 비판적인 언어를 운용해야 하는 입장과 고도의 전문가로서의 생산자의 언어 운용을 습득하고자 하는 입장의 교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매체교육에서는 이러한 언어주체로서의 정체성의 문제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미분리되어 있거나 혼란의 양상을 보여 준다. 언중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라면 전문가로서의 언어주체가 어떻게 관습적이며 상투적이며 지배적인 문화 코드로서의 언어를 보여 주고 운용하는지에 대한 접근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자아실현의 언어주체로서의 정체성이라면 그와는 반대로 관습과 상투성, 코드로부터의 일탈 등의 창조적 양상에 중점이 놓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아와 언중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매체현상, 예를 들어 인터넷 상의 사이버 공간이나 SNS와 같은 현상을 통해 생산과 수용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자의 결합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언어인식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해 가야 할 문제이자 잠재적인 의식으로 발현되기도 하는 ‘매체의 경험’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해 갈 문제는 아니다.<sup>12</sup>

한 자아이자 언중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학습자에게 전문가의 언어와 충돌을 의미하는 성취기준과 활동들, 예를 들어 매체 텍스트의 내용에 한정되는 접근을 위한 많은 성취기준과 활동들은 전문가와 자아, 언중의 주체들 간의 언어인식의 맥락으로 전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3</sup>

12 잠재적 의식으로 발현된다는 것은 특정 매체를 떠올리면 자동화된 반응(수용과 생산의 양 측면 모두에서)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13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매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접근 활동은 신문기사와 광고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쓰는 기자나 광고를 만드는 광고인들은

### 3. 관습과 당위적 태도 사이의 간극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언어는 관심을 공유하는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는 인간적인 의지가 없다면 언어는 소용이 없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의사소통 기술의 발전은 먼저 말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며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은 특별히 협조적이라는 주장도 수용하는 편이다. 특히 매체교육에서의 언어인식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의 학습자들은 매체교육에서 선순환구조라는 명분에 긴박당하고 있다. 일상적인 매체나 매체 텍스트에서 끊임없이 문제적인 현상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이탈해 나와야 하며 그것들과 대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적인 현상의 주체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학습자들은 그들과 분리되기 어렵다.

간단한 예를 들어 악플의 생산자도, 그것들을 음성적으로 향유하는 개인들도 공동체의 일원이고 경우에 따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 교육 현장 밖에서는 잠재적인 악플의 생산자일 개연성이 큰데, 교육의 현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악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익명성이라는 요소는 달리 보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관습의 산물이다. 정도는 다르지만 악플의 속성과 유사한 언어 사용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흔히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당위성은 일상적인 언어생활과의 유리를 요구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매체교육은 학습자들이 교육 이전에 관습으로

---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언어 운용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 중에는 장차 기자가 되거나 광고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신문기사와 광고를 비판적으로 읽으라는 활동이 주어질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제기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높은 언어 운용 능력을 지닌 생산자의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그들의 언어 운용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신문기사나 광고가 신문사나 광고주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고 과장하고 미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생산적이지 않은 것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간직해 온 매체 언어에 대한 인식을 과정적인 절차를 거쳐 교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매체 언어에 대한 인식이 매우 관습적인 것임을 보여 주는 사례로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필자가 대학 소설 강의에서 ‘장면 중심의 소설사의 이해’라는 활동을 시도한 적이 있다. 소설사를 이해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 지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였다. 소설사의 주요 작품들에서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설정하고 그것이 명장면인 이유를 소설사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라는 과제를 부여하는 수업이었다. 이 수업은 기준의 소설사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단계를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심화된 이해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당연히 구체적인 작품을 정밀하게 읽고 기준의 연구를 원용하여 그 장면의 소설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수업에서 한 학생은 ‘혈의 루’의 명장면으로 옥련이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우등생으로 졸업했다는 기사가 났다는 대목을 뽑았다. 그 이유로는 ‘사실 여부는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최초의 여자 유학생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을 들었다. 개화기 소설의 몇몇 내용상 특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결과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이 학생이 손수 제작했다는 이 이미지는 신문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필자가 주목한 바는 기사의 제목이다. 발표의 내용이라면 ‘한국 학생’



‘한국 유학생’ ‘한국 여성 유학생’이어야 했을 터인데 ‘BES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신문기사의 특성상 이러한 제목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고려없이 사용했다는 답변이었다. 신문기사의 제목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이 그대로 노출된 결과라 판단되었다. 해당 학생 역시 자연스럽게 그러한 방향으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추가 답변을 했다. 그렇다고 신문기사에 대해 특별히 배운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 사례는 매체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태도가 매우 관습적인 것임을 잘 말해 준다. 학습 경험이 없지만 자주 접하는 매체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일상적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관습적으로 형성되고 발현되는 매체 텍스트에 대한 반응을 놓고 볼 때 학습자들이 악플이라는 현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순연히 일상적 경험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악플이라는 현상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을 요구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없다. 관습은 의식적인 노력만으로는 변화하기 어렵기에 과정적인 절차를 거쳐 수용하고 비판하고 조정하는 또 다른 관습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악플과 선플 사이에 놓인 다양한 스펙트럼의 언어들을 경험하게 하고 점차 순화된 쪽으로의 언어 선택을 유도하고 습관화되도록 함으로써 관습으로서의 악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찰적 사고와 그에 따른 언어에 대한 인식도 형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악플을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이와 유사한 특정 매체 텍스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지양하려는 태도는 학습자들에게 전제적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텍스트들을 구성하는 언어들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 텍스트들은 내용의 부적절함이나 가치론적 문제를 떠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욕구의 반영이다. 반성적인 사고는 의사소통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소통이 막혀 있을 때 발현되는 언어의 표출양상이다. 그런 점에서 반성적인 사고의 통로를 열어 놓을 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언어현실과 유리되지 않으

면서도 자연스럽게 선순환구조 속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매체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든지 악순환구조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학습자들을 선순환구조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체언어에 대한 관습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보다 확대될 것이다.

#### IV. 맷음말

현재의 매체교육이 일정한 궤도에 올라왔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어떤 점에서는 학습자의 매체 능력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매체교육은 그 기반을 이루는 언어인식의 측면에서 재설계되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필자는 그것을 수용자와 생산자로서의 학습자가 겪어야 하는 이중성, 자아와 언중으로서의 언어주체의 정체성 혼란, 공유와 성찰을 위한 지향성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았다. 매체교육이 매체와 매체 텍스트의 현상에 초점을 두는 일에서 나아가 그 기반이 되는 언어인식에 관심을 기울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매체교육을 위한 성취기준이나 활동구안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의 사례를 제시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매체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용자라는 두 주체 간에 존재하는 언어 운용의 거리감에 대한 인식과 그 거리감이나 충돌 양상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 생산자의 전략적 언어 운용에 대한 이해가 교육 내용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산자의 목적이나 의도, 그에 따른 전략적인 언어 운용에 대한 이해와 분석 없이 매체 언어에 대한 심화된 이해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는 국어활동으로서의 읽기, 말하기 학습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글쓴이나 말하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효율적인 이해 활동이 어려운 것처럼 매체 텍스트에 대한 온전

한 이해도 생산자의 전략적 언어 인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매체 언어 교육이 국어교육 전반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할 것이다. 매체 텍스트는 학습자들의 생활과 밀착된 텍스트이기에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용이한 텍스트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학회 측이 의도하는 바 한국어교육에서의 접근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필자의 경험 상 외국인에게 목표 문화는 목표 언어의 이해를 위한 장치이자 목표 자체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목표 언어에 이르는 데 작용하는 ‘장애’이기도 하다. 특히 목표 문화의 최일선에 놓여 있는, 목표 언어로 이루어진 매체 및 매체 텍스트는 목표 언어의 규범성에서 벗어나 있거나 학습할 대상으로 주어진 목표 언어에 선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렬한 지향의 대상이면서도 장애가 된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논의의장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3. 2. 28. 투고되었으며, 2013.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13.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대행(2007), 「매체 환경의 변화와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28호, 국어교육학회.
- \_\_\_\_\_ (1998), 「매체언어교육론 서설」, 『국어교육』 97.
- 김동환(2010), 「소설과 매체 서사 교육의 상호작용적 방법론의 모색」,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 김슬옹(2010), 『매체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출판부.
- 김은성(2005), 「비판적 언어인식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5, 국어교육연구소.
- 박인기 외(2000),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원.
- 서유경(2002), 『인터넷 매체와 국어교육』, 역락.
- 윤여택(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출판부.
- 전국국어교사모임(2005), 『매체교육의 길찾기』, 나라말.
- 정재찬(2009), 「미디어 시대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제28호.
- 정현선(2004), 『다매체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학교육』, 역락.
- 최인자(2002), 「다중문식성과 언어문화교육」, 『국어교육』 109호.
- 노먼 페어클럽, 김지홍 역(2010), 『언어와 권력』, 경진.
- 니클라스 루만, 김성재 역(2006), 『대중매체의 현실』, 커뮤니케이션북스.
- 데니스 맥컬, 박창의 역(1999), 『수용자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 아더 아사버거, 한국사회언론연구회 매체비평분과 역(1990), 『대중매체비평의 기초』, 이론과실천.
- 일레이ен 볼드윈 외, 조애리 외 역(2006)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 크리스틴 캐널리, 전소영 역(2009), 『언어의 진화』, 알마.
- Banyai, Istvan(1998), Re-Zoom, Puffin Books.
- Hart, Andrew(1991), *Understanding the Media*, Routledge.

## 매체교육과 언어인식

김동환

이 논문은 매체교육에서 드러나는 언어인식상의 문제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매체교육은 학습자들이 하여금 갖추도록 요구하는 언어인식이 학습자들이 경험적으로 갖추게 되는 언어인식과 어떤 양상으로 연관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의 논의들이 매체언어에 대해 당위적으로 비판적인 인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논의를 위해 전단계적 검토로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매체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기계/전자 매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었으며 수용-활용-작용의 세 맥락에서 매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논의의 출발점을 위한 잠정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내었다.

이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논하고자 한 바는 매체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언어인식적인 문제의 양상인데, 모두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학습자가 수용자와 생산자로서 매체 텍스트를 대할 때 언어인식상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용자로서는 매체 텍스트의 언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대상이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매체 언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언중으로서와 개인으로서 텍스트를 대할 때 나타나는 정체성의 혼란이다. 비판적으로 인식해야 할 대상으로 학습하는 매체 텍스트들의 언어가 경우에 따라 장차의 직업적 선택 등 의 이유로 지향해야 할 언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습자들이 당위적으로 요구받는 언어 운용상의 태도와 그동안 경험적으로 형성되어 온 태

도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상적 경험의 반영일 수 있는 매체활동들에 대해 부정 일변도의 접근을 요구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사고의 길을 열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체교육이 매체와 매체 텍스트의 현상에 초점을 두는 일에서 나아가 그 기반이 되는 언어인식에 관심을 기울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매체 교육을 위한 성취기준이나 활동구안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의 사례를 제시해 보았다.

핵심어 매체교육, 경험적 언어인식, 수용, 활용, 작용, 충돌 현상, 정체성 혼란, 관습적 태도, 당위적 태도, 성찰적 사고

## **ABSTRACT**

# Media Education and Language Awareness

Kim, Dong-hoan

This research aimed to take a reflective review of problems on the language awareness in media education. This research was based upon the promise that the curriculum until recently deals media in the three context, acception, application, working.

This thesis suggest three aspect of problems to solve on the language awareness in media education.

That is as follows,

First, a learner experience the dissonance of language awareness when he come across the media texts as a audience and a producer.

Second, a learner is in a state of confusion about his identity in that time of coming across the media texts as a linguistic group and a individual.

Third, there is a gap between the attitude of language use be asked normatively and the attitude being formed empirically.

This thesis also suggest a proposal and some case for productive and effective media education based on the reflective language awareness not on the phenomenon of media and media text.

**KEYWORDS** media education, language awareness, dissonance of language awareness, confusion about his identity, gap between the attitude of language use